

이번 봄에도 대학가 원격수업... 등록금 논란 재점화 '우려'

주요 대학 대면·원격수업 병행

대학생 활동반경 커 감염 우려 ↑
실기·실험 등 일부 수업만 대면
학생들 등록금 반환요구 가능성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원격수업
을 중심으로 대면·원격수업을 병행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하기에는 아
직 이르고, 대학생들은 활동 반경이 커
전파 확산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원격수업 확대로 촉발된 등록
금 반환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대면 수업이 축소되면
서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
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최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
학기 학부 수업 운영계획을 속속 공지
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오는
봄학기에도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
기로 했다. 서울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진행 가이드'를 제시했다.
강의 특성에 따라 강좌를 4개 군으로 나



지난 2학기 한 대학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누고 그에 따라 수업방식을 정하는 게
끝자다.

가이드에 따르면 A군(실습·실습·실
기)은 전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B군
(이론 및 실습·실습·실기)은 5주 이상 대
면 수업을 한다. C군(소규모 교과목)은
5주 미만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지만, 이
론 강의 중 D군(이론·대규모 교과목)은
2학기 내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재량으로 수업
운영방식과 대면 수업 기간, 절대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려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기본으로 대면 수업을 제한적으로 실시

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인 점을 고려해 1학기 초에는 온라인강
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하고, 대면 수업
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3
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서는 전면 온라
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중앙대는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해 1
학기 전반기 8주간 수업을 학내 '단계별
학사 운영 계획'에서 '2.5단계'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단계에
는 모든 수업이 원격(비대면)으로 운영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실습·실
습, 실기 수업만 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
으며, 원격과 혼합해 운영하는 것도 가
능하다.

인하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
른 대면 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
단계와 1.5단계에서는 대면·비대면 수업
을 병행하고,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일
부 실습·실습·실기·설계 과목만 제한적
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끝자다.
3단계가 되면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화여대는 수강정원에 따라 수업방
식을 결정한다. 이화여대는 50명 이상
의 이론, 이론·실습 교과목은 비대면 수
업으로 진행하고, 50명 미만이면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수업을 진
행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과목 정
원이 없어 담당교수가 대면 수업·혼합
수업·비대면 수업 중 선택해 진행하게
되며, 수강신청인원이 50명 이상인 경
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이
상인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 추이
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에 따라 수업 방
식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국의대도 수강정원 50명 이하 모든
수업은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수강정원 51
명부터는 학기 전체 모든 수업을 비대
면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50명 이하 대면 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여부가 정해진다. 거리두

기 1·1.5단계에는 수강정원 12명 이하 모
든 수업과 수강정원 12명 이하 모든 수
업, 30명 이하 PC실습, 체육실기, 이공계
실습·실습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외 수강 정원 13~50명 수업은 대면과 비
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2단계는 30명 이
하 이공계 실습·실습 수업과 12명 이하
회화(말하기)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2.5단계가 넘으면
모든 수업은 비대면으로 한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도 대학가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등록금 반환 요구가 또다시 학생들 사
이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많은 대학이 특별 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했으나 그 규모가 학생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한 대학 관계자는 "1학기 경험
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을 듣는 강의도 교수자가 무조건 해당
수업 시간 지정 강의실에서 온라인 수
업을 하는 등 이전보다는 원격 강의 질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서도 "다만 대면 수업과 100% 같은 효
과를 담보하긴 어려워 학생회 측과 충
분한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oeul.co.kr

'식품인력 양성'... 서울대·경희대 학과 신설

농식품부, 계약학과 대학 2곳 선정
서울대 푸드테크, 경희대 미래식품

서울대와 경희대에 식품분야 전문 인
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의 계약학과
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식품 계약학
과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할 교육
기관으로 각각 경희대와 서울대를 선정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상
호 협력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농식
품 분야 최초로 고려대(세종)와 한양대
에 기능성식품 계약학과를 개강해 40명
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후 농식품 분야
계약학과 추가 개설에 대한 기업 수요
확산 등에 따라 올해 2개 학과를 추가

개설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역량, 대학
입지, 교과과정, 교육생 모집 용이성 등
을 평가해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두 대학의 대학원은 농식품부
지정 필수과목과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실습·심화과정으로 교육과
정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경희대가 운영하는 미래식품 계약학
과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하
는 맞춤형식품·특수식품·간편식품 등 새
로운 식품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대의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IT·AI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한 융합형 식품인재 양
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신규 개강하는 계약학과는 식품기업
또는 식품산업과 연계 가능한 중소·중
견기업 재직자(10개월 이상 근무)를 대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졸업요건 충
족 시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생 모
집은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
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향후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학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대 이기원 교수는 "서울대의 산·학 문제
해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기업
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희대 이정민 교
수는 "경희대의 의학영양학 연구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학과 식품을 연
계한 고령친화식, 메디식품 분야 전문
가 육성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호서대 '자녀 진로컨설팅' 성료

호서대학교 입학처는 지난달 28·29일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 컨설팅'을 온라인
으로 운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온라인 진로 컨설팅에서는 한국진로
진학연구원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전문
가 11명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한, 컨설팅 전 학생 개개인의 상공회의
소 진로개발역량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예비 고1(중 3학년) 학생들이
고교 진학 전에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이현진 기자

숭실대 신입 총장 취임식 유튜브서 생중계

15대 장범식 총장 취임

숭실대학교 제15대 장범식 총장(사
진)의 취임식이 2월 1일 오전 11시 비대
면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다.

장 신입 총장은 이날 업무를 시작하
며 임기는 4년이다.

1957년생인 장범식 총장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
학 석사, 텍사스주립대 경영학 박사과
정을 거쳤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를 통해 온라인
으로 실시간 중
계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한편, 장 총장
은 1995년부터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며 경영대학원장 겸 노사관계대
학원장, 학사부총장, 한국증권학회 회
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장관
급)를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쪽문 골목길 벽화를 제작한 세종대 건축학과 (왼쪽부터)신해완, 이서현, 채수진, 임예은, 이찬희 학생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학생들, 골목길 환경개선 팔 걷어

주민 설문조사 거쳐 벽화 만들어

세종대 학생들이 대학 쪽문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벽화를 그려 눈
길을 끌고 있다.

세종대학교는 건축학과 임예은(17학
번), 이찬희(18학번), 이서현(18학번), 신
해완(18학번), 채수진(18학번) 학생이 세
종대 쪽문 골목길 환경 개선을 위해 벽
화를 제작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학생들의 이번 작업은 캠퍼스타운에
서 실시한 '2020 학생 마을디자인' 활

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학생 마을디
자이너는 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역인 군
자동 일대의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까지 하는 활동이다. 이번 작업은 6
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작업 과정에
서 학생들은 주민과 소통을 위해 설문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골목길 환경과 안전 문제에 관심 많다
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어두웠던 골목
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문 계단에
전등을 설치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내일 삼성·네이버 등 기업AI 전문가 초청 특강

중앙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시까지 '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A
I) 아카데미 온라인 특강'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 관련 학습 역량 향상
을 위해 다양한 기업 AI전문가를 초청
해 진행된다.

특강은 박상규 총장의 인사말을 시작
으로 ▲ETRI 박상규 부원장 ▲LG CN

S 김진수 전문위원 ▲네이버 AI연구소
하정우 연구소장 ▲법무법인 화우 석제
범 고문 ▲삼성SDS 정용현 연구원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특강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앙대는 2월 1
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 당일 신청
도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